



이광기 / 1968년생.  
 갤러리AG(2017)에서 개인전  
 개최. 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2023~24),  
 <태종 이방원>(2021~22),  
 <정도전>(2014), 연극  
 <가시고기>(2011) 등에 출연.

# 이광기

사진가, 컬렉터, 기획자 배우 이광기는 사진, 조각 작품 제작, 컬렉터, 전시기획자 등 다양한 얼굴로 미술계의 일원이 됐다. 2010년 사진작품부터 시작했다. 아이티 봉사 활동 때 재능 기부에 나섰다. 행복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찍어 자선 경매 쇼에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주위에서 사진작업을 더 깊이 해보라고 권유했다. "감동을 느낄 때 셔터를 눌러라!"라는 조언을 마음에 담았다. 꽃을 찍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든 꽃에 감동했다. 꽃은 씨앗을 떨어뜨린다. 꽃은 죽음으로써 또 하나의 생명을 남긴다. 꽃에서 상처와 치유, 삶과 죽음, 생명의 순환을 보았다." 안국갤러리에서 첫 사진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 제목은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다.' 이후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조직위원을 맡았다. DMZ는 네비게이션으로 갈 수 없는 금지 구역. 여기서 착안한 것이 '핀' 스피ن. 목적지, 출발지, 길잡이, 이정표와 같은 다양한 함의를 담을 수 있겠다 싶었다. 이는 삶의 방향, 삶의 가치 등을 은유하기도 한다. 핀 스피인을 빨간 풍선으로 제작해 야외에 설치했다. 먼저 아이티의 학교 자갈밭에 세웠고, 그 뒤 DMZ의 탄약고 앞에 세웠다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영구 설치되었다. 앞으로 인류가 직면한 평화, 재건, 환경 재생 등을 주제로 영상작가와 협업 프로젝트를 꿈꾼다. 독도, 한라산, 백두산 같은 사이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술계와 가까워져 컬렉팅을 하다보니, 좋은 작가인데 홍보가 부족한 작가들이 눈에 띄었다. 안타까웠다. 젊은 작가와 중견 작가들의 미술품 경매를 엔터테인먼트화하기로 했다. 유튜브로 미술품 경매를 시작했다. 작가들의 작품에 해설을 곁들였다. 코로나19 기간에 100회 이상의 경매를 방송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시 공간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2018년 파주 출판단지에서 '스튜디오끼'를 만들었다. 공간 대여 사업과 전시를 병행하다 결국 '갤러리끼'로 이름을 바꾸고 미술전시 공간으로 정착했다. 김태호 김강용 우종택 변시지 김성룡 등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그룹전도 기획했다. 2023년에는 용산에 갤러리끼를 열었다. 앞으로 힙한 전시를 꾸밀 예정이다. / 김복기 대표



위 · 이광기 <Peace Pin>  
스테인리스 스틸, 섬유강화  
플라스틱 가변크기 2019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왼쪽 · 백남준 <Lamp> 혼합재료  
25×33×50cm 1994  
아래 · <들숨날숨 ·  
인간풍경>전 전경 2023  
갤러리끼 파주\_정현의 조각,  
드로잉(왼쪽)과 한효석의 회화.

오른쪽 페이지  
이광기 <살이 꽃이라면  
죽음은 살의 뿌리다> 피그먼트  
프린트, 디아섹 2016\_이광기는  
연예계 대표 아트테이너다.  
경기도 파주와 서울 용산 두  
곳에서 갤러리끼를, 미술품  
경매를 실시간 중계하는  
유튜브 '이광기의 광기채널'를  
운영하고 있다.

